Hufs Pres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TEL,02-2173-25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발행인 김인철 / 편집인 겸 주간 김원명 / 편집장 김나현

hufspress.net

[심층] » 5면 급감한 구인공고, 대학생 생계는? [기획] » 7면 코로나19 등록금 논란, 그 파장이 닿을 곳은? [사회문화] >> 8면 우리나라를 덮친 갑질 바이러스 [인물] » 12면 유지원 크리에이터를 만나다



우리학교, 2021학년도 입시 예열 시작돼

우리학교 입학처(이하 입학처)가 2021학년도 입시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던 각종 설명회와 모의고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걸쳐 2021학년도에 △우리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고교방문입시설명회△교사간담회△모의논술고사△모의면접이 실시된다. 입학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각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달 1일부터 코로나19로 연기된 등교 일정을 반영해 고교방문입시설명회(이하 입시설명회)가 실시된다. 4월 중 450여 개 고교가 이를 신청했다. 교사간담회는 지난달부터 온 ·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되고있다. 이번 해 예정된 교사간담회는 총 46회이며 이중 11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해 모의논술고사(이하 모의논술)는 온 · 오프라 인 모두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모의논술은 이번 달 11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신청가능하 다. 각 수험생은 신청 직후부터 이번 달 23일 오후 5시 까지 응시할 수 있다. 한편 오프라인 모의논술의 신청 기간은 이번 달 1일부터 8일 오후 5시까지다. 오프라 인 모의논술은 고교 교사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교 사의 재량에 따라 시험이 진행된다. 채점은 온라인 응 시자 전원과 오프라인 응시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입학처는 "다음 달 중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채점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며 "수험생에게 논 술고사 문항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 란다"고 전했다.

'한국외대 찾아가는 모의면접 HUFS ON THE ROAD'는 지난해와 같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해엔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온라인 모의면접 'HUFS ON THE WEB' (이하 온라인 모의면접)이 신설됐다. 화상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모의면접은 농어촌 및 서해 5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온 · 오프라인 모의면접은 고교 교사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며 이번 달 중순 신청 접수를 마친 뒤 7 · 8월 중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준성 기자 100leejs@hufs.ac.kr

우리학교 진로취업지원센터, Al솔루션 프로그램 제공해

우리학교 진로취업센터가 이번 달 1일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AI 솔루션(AI 면접·자기소개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는 코로나감염 증바이러스-19로 기업의 비대면 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재학생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목적이다. 이를 통해 재학생은 AI 자기소개서 및 면접 등 AI 채용의 모든 과정을 준비할 수있다.

지다. AI 솔루션은 'ARI 플러스'와 '인페이스'로 구성된다. 우선 ARI 플러스는 자기소개서 작 성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진 로취업지원센터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30여 개의 주제별 글의 구성방식과 합격예시를 제공한다. 재학생은 60만 건의 빅데이터를 통한 완성도 점수도 제 시받을 수 있다. 인페이스는 실제 AI 면접과 동일한 방식의 모의 면접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AI 면접은 크게 △면접평가△성향평가△AI 게임 으로 나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된 진단 결과는 인페이스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 에도 AI 면접에 생소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 동 영상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접속이 가능해 개인 컴 퓨터의 브라우저에 따라 접속이 어려울 수 있 다. 이정원(자연・생명공학 20)씨는 인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피드백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도입된 AI 채용제도에 맞춰 자기소개서를 쓰 거나 면접 연습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 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서미 기자 99seomi@hufs.ac.kr



2 **대학보도**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외 대 학 보**

우리학교 3주체 총장선출제도 개선위원회 설립 확정돼

△교수△직원△학생 3주체가 참여하는 총장선출 제도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 설립이 확정됐다.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위원회 설립에 관한 온라인 찬반 투표가 시행됐다. 이어 29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설캠 총학)가 공식 SNS에 게시한 개선위원회 설립 확정 보고에 따르면 개표 결과 유권 교수 464명 중 66%인 30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해당 투표에선 찬성 167표(54.05%), 반대 142표(45.95%)로 찬성표가 과반을 넘어 개선위원회 설립이 확정됐다. 설캠 총학은 "지난 수

년간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면서 도 "54%란 저조한 찬성률은 교수 사회의 특권의식 과 학내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 부족을 여실히 보여 준 결과다"고 유감을 표했다. 개선위원회 위원 과반 이상을 교수로 구성한 것이 전제됐음에도 찬성표가 지나치게 적었단 것이다. 설캠 총학은 "학생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민주적인 총장선출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된 온라인 투표 시행은 지난달 8일 열린 교협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해당 회의의 안건은 '개선위원회에의 교수 참여 여 부' 였지만 성원 미충족으로 의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협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해당 안건을 처리하겠단 결정을 내렸다. 설캠 총학은 지난해 8월 교협 총회에서도 정족수 미달로 같은 안건이 계류된 바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비판했다.

현재 우리학교의 총장 선출 과정엔 학생이나 교직 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우리학교 교협 회칙 에 의하면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전체교수협의회 가 투표로 선출한 두 명의 총장 후보를 이사회에 추 천한다. 이후 이사회는 이 중 한 명을 총장으로 임명 한다. 일각에선 이런 총장 후보 선출 제도로 인해 후 보자가 학내 구성원 전체보단 교수의 이익을 우선 시하게 된단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준성 기자 100leejs@hufs.ac.kr

코로나19 예방 위해 계절학기 수강방식 변화돼

이번 해 여름계절학기(이하 계절학기) 수업이 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된다. 또한 P/F 과목을 제외한 모든 강좌는 절대평가로 실시된다. 계절학기 학부 수강 신청은 이번 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이후 수강변경 및 취소 기간은 이번 달 10 일부터 12일까지다. 지난달 19일 우리학교 학사종 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는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관 련 일정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계절학기 기간은 이번 달 2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총 16일이다.

계절학기의 비대면 수업 방식은 이번 학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강의 플랫폼은 교수의 재량으로 선택되며 시험 역시 비대면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1학기에 접수된 비대면 수업에 관한 학생들의 건의는 각학과에 전달돼 시정이 마쳐진 상태다. 다만 일부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학종지 담당자는 "계절학기는 1학기에 준하는 보조 학기이기 때문에 큰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한 "비대면 수업이기에 시험 역시 비대면이 원칙이다"고 밝혔다.

비대면 계절학기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안지현(상경·국통 19) 씨는 "계절학기가 온라인으로 진행돼 수강을 결정했다"며 "비대면 강의를 통해 통학의 부담을 줄이고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시험이 절대평가로 치러져 부담을 많이 덜 수 있다"고 했다. 한편이학승(사회·미디어 19) 씨는 "1학기 때 정규수업

시간을 채우지 않았던 수업이 많았다"며 "계절학기에도 부실한 수업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런 가운데 계절학기에서 학생들의 불만 사항이 해소되고 질 좋은 강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이준성 기자 100leejs@hufs.ac.kr

글로벌캠퍼스 정문 보수공사 설계도면 채택돼



▲글로벌캠퍼스 정문 조감도 (출처: HGA건축디자인연구소)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정문 보수공사가 시작된다. 이번해 3월, 글캠 기획건설팀은 학교홈페이지에 '정문개보수공 사설계 및 감리용역' 공모를 게시했다. 이후 공개 입찰을 통해설계도면이 낙찰됐다. 입찰에 당선된 HG-Architecture 건축디자인연구소는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정문을 모두가 인지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고유의 정체성과 형태를 살리는 식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처럼 보수공사는 기존 구조물을 모두 허무는 것이 아닌 새로운 재료를 더해 이뤄질 예정이다. 설계용역비는 3000만 원이며 보수공사 예산안은 4억 5천만원이다.

한편 글캠 정문의 보수공사 시행논의는 노후화와 상징성 부재를 이유로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2016년, 총장과의 대화에서도 이는 언급됐으며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다시 거론됐다. 길게 뻗어있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글캠은 학생과 교직원이 주로 차량을 통해 정문을 통과한다. 이로 인해 도보 접근성이 낮아 오랫동안

낙후된 상태로 방치됐다. 첫 취임 당시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은 캠퍼스 간 균형발전 및 캠퍼스별 특화성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김 총장은 2018년 2월까지 글캠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이간 조명을 갖춘 교문을 완공하겠단 세부 공약도 덧붙였다. 그러나 훕스돔(HUFS Dorm) E동이 먼저 보수공시를 시작함에 따라 정문시공은 미뤄졌다. 한편 정문 보수공시는 이번해 7월에 시작돼 9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시공 역시 설계와 동일하게우리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입찰 방식으로 선정된다.

이서미 기자 seomi99@hufs.ac.kr

우리학교 영미문학문화학과 재학생, EU대표부 로고대회 대상 수상해

김지수(영어・영문 16) 씨(이하 김 씨) 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이하 EU 대표 부)의 로고 공모대회에서 대상을 받았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김 씨는 별도의 시상식 없이 EU 대표부에 개별적으로 초청됐다. 시상 은 미하일 라이터러 주한대사가 맡았으 며 부상으론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이 수여됐다. 김 씨가 디자인한 로고는 승 인절차를 거쳐 향후 1년간 EU 대표부 홍보물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씨의 로고는 분수 형상을 하고 있 다. 또한 태극기의 구성색인 △빨간색

△파란색△검정색으로 이뤄져 있다. 로고엔 'EU와 우리나라 의 조화로운 협력' 이란 의미가 담겼다. 김 씨는 "용기 있게 색 다른 형식을 시도한 것이 좋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로고는 기존의 틀을 탈피했단 평을 받았다. 김 씨는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 도전할 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 김 씨가 제작한 한-EU 전략적 협력 10주년 기념 로고

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해외 기업 등 국제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 관련 직업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번 공모전은 EU 대표부가 '한-EU 기본협력협정 체결 10주년'을 맞아 개최됐다. 2010년에 맺어진 해당 협정은 유럽연합(이하 EU)과 우리나라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보여준다. EU 대표부는 공모전 공지를 통해 "지난 10년간 EU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 등의 다양한 국제 문제에서 협력해

왔다"며 "로고 공모전을 통해 그간의 굳건한 연대를 기념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준성 기자 100leejs@hufs.ac.kr

글로벌캠퍼스 진로취업센터 온라인 NCS특강 진행해

이번 달 1일부터 5일까지 우리학교 글 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진로취업센터 의 주최 하에 '공기업 · 공공기관 공채 대비 온라인 라이브 NCS특강'이 진 행됐다. 이는 상반기 공기업과 공공기 관 취업을 희망하는 재학생에게 △최 신 채용 동향△자기소개서 작성법△ NCS 영역별 공부법 등 실질적인 도움 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5월 4일 진행한 직무특강과 동일하게 이번 특강 역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인해 비대면으로 열렸다. 사전에 신 청한 학생은 카카오TV 비공개 방을 통 해 실시간으로 참여했다. 인원은 선착 순으로 제한됐으나 많은 학생이 참여 를 요청해 주최 측은 참석 인원을 무제 한으로 변경했다. 한편 이번 특강에 참 여한 학생은 총 114명이다.

이번 특강엔 공기업 취업 전문가가

초청됐다. 특강은 \triangle 공기업 취업전략 \triangle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이하 NCS) 문제해결능력 \triangle NCS 의사소통능력 \triangle NCS 수리능력 \triangle NCS기반 면접특강을 주제로 한 강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윤재식 글캠 진로취업센터 담당 직원 은 "이번 특강의 반응이 좋아 차후 공 기업 · 공공기관 취업대비 관련 특강 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강에 참석한 박지윤(서양어 · 독일어 18) 씨 는 "공기업 취업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학교 측 이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을 많이 운영했음 좋겠다"는 바람을 표 했다.

이서미 기자 99seomi@hufs.ac.kr

양 캠퍼스 총학생회,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를 고민하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총학생회(이하 총학) 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 다. 이에 선거 당시 내세운 총학의 공약 이행엔 차질이 생겼다. 이에 대한 △설캠 총

학 '새벽으로부터'의 상반기△글캠 총학 'The 본'의 상반기△양 캠퍼스 총학의 협업 △하반기 총학 활동 방향성을 알아보자

◆설캠 총학 '새벽으로부터'의 상반기

지난달 28일, 설캠 총학 '새벽으로부터' 는 공식 SNS 온라인 생중계로 '2020 상반기 정기 공청회' 를 진행했다. 이는 △총학 중앙집행위원회 기 조 및 정책 이행 상황△총학 중앙집행위원회 활동 및 계획 보고△하반기 총학 결산△상반기 총학 예산안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설캠 총학은 총 41개의 공약을 내세웠고 이행 중인 상태다. 주요 공약은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개최△어학강의 성적 평가 방식 개선△학내 성폭력 사건 관련 징계제도 개선 등이다. 설캠 총학은 궁극적으로 절대평 가가 모든 강의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점 경쟁을 부추기며 대학 의 본질을 흐리는 상대평가는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란 것이다. 한편 설캠 총학은 추후 어학 수업 평가 기준에 대해 담당 부처와 개별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학기 대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평가 기준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이에 이번 학기에 한해 전 과목 절 대평가 시행을 요구했고 학교 측은 이를 수용했다.

설캠 총학은 이번 학기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총학과 함께 '2020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를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비대면으로 요구안과 질의서를 발송하 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대체했다. 이후 후보자를 직접 찾아 가 개별 면담을 진행해 학생의 의견을 전달했고 해당 내용을 설캠 총학 공 식 SNS로 공유했다. 설캠 총학은 동대문구 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안규 백 국회의원에게 추후 공공기숙사 설립, 교통편의 개선 등과 관련해 학생 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설캠 총학은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해 설캠 중앙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학생TF팀(이하TF팀)을 발족했다. 이는 학교 측 코로나19 비상 대책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가 공식적으로 거부되며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TF팀은 일일보고를 진행하며 학내 · 외 변동 및 유의시항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공식 SNS 계정에 게재했다. 또한 내부 적으로 온라인 선거와 자체 방역 지침 제작 등 학생 자치 활동을 유지 및 개선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5월 28일 설캠 총학 공청회 (출처: 설캠 총학 공식 SNS)

주체 총장선출제도 개선위원회가 설립됐다.

더불어 3월 4일부터 9일까지 양캠 총학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와 의료진을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일 동' 으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에 전달됐다. 또한 양캠 총학은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 하는 활동을 주도했다. 해당 번역 본은 질병관리본부 공식 홈페이지 에 게시됐다.



▲5월 8일 글캠 총학 융인대 반대 시위 (출처: 글캠 총학 공식 SNS)

에 감사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고밝혔다.

또한 장서영(동유럽·세크어 20) 씨는 학교에 가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 내며 하반기로 미뤄진 총학의 새내기 관련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기대감 을 드러냈다. 이에 박 회장은 "하반기에 1학기의 몫까지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양캠 회장의 의지를 확인한 가운데 하반기 총학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연수 기자 100yeonsue@hufs.ac.kr

◆글캠 총학 'The 본'의 상반기

제41대 글캠 총학 '더 본(The 본)'은 △모교방문단 발족△학점 포기 제도 △1학년 회화수업 절대평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학사제도 개선을 위해선 학사제도협의회를 개회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 운 상황이었다. 이에 현재 글캠 총학은 수강신청제도 개선과 관련해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1학년 회회수업 절대평가와 관련해선 △국 제지역대학△동유럽대학△통번역대학의 협조로 절대평가 시행을 위한 조시를 진행했다. 절대평가 적용의 적절성과 이후 필요한 후속조치 등도 논의 후세부 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글캠 총학은 융합인재대학(이하 융인대) 신설 학칙 개정과 관련하 우리학교 행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학칙 개편에 있어 학생 의사를 배제 했단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처로 △반대 서명운동△반대 시위 운동 △SNS 릴레이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융인대 관련 학칙이 개정 되자 관련 학과 회장과 논의해 향후 후속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구체적으 로 대책위원회 발족과 대책위원회에 학생위원 참여 보장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진로취업지원센터와 함께 진로 · 취업에 활용할 온라인 플랫 폼 교체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글캠 총학은 코멘토, 잡플래닛 등의 취업 관련 온라인 플랫폼의 선호도 조시를 실시해 지원할 예정이다.

◆양 캠퍼스 총학의 협업

양캠퍼스(이하 양캠) 총학은 △총장직선제 요구△코로나19 관련 모금 활 동△코로나19 예방수칙 번역본 제작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총장직선제 쟁취는 이번 해 양캠 총학의 주요 공약이다. 설캠 총학은 개선 요구를 위 해 '총출동: 올해로 끝장내는 총장선출권 공동행동(이하 총출동)' 을 진행 하고 있다. 1월 21일, 그시작으로 사회과학관 건물 측면에 총장선출권 쟁 취 의지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글캠 총학 또한 지난해 출범된 총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총장직선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어 지난달 8일, 설캠 오바마홀에서 진행된 2020년 상반기 전체교수 협의회(이하 교협)에서 '총장선출제도 개선위원회에의 교수 참여' 가 하 나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양캠 총학은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 정족 수 미달로 의결은 무산됐다. 이후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교협 회원 대상의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약 54%의 찬성률로 △교수△직원△학생 3

◆하반기 총학 활동 방

코로나19 확산으로 이행률이 저조 한 공약도 있다. 이에 양캠 총학은 남은 시간동안 해당 공약 이행을 준비해 상황이 안정될 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 전했다.

설캠 총학의 경우 △계절별 즐길 거리 '훕스 시즌 그리팅' △명사 초 청 토크쇼 '이문스퀘어' △퀸쿠아 트리아 콘텐츠 및 테마 강화와 같 은 공약 진행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김나현(서양어 · 프랑스어 15) 설캠 총학생회장(이하 김 회장) 은 "훕스시즌 그리팅 같은 경우 봄 과 여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 이기에 가을과 겨울 시즌 그리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

글캠 총학의 경우 모교방문단 관 련 공약을 시행하는 것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박장원(자연·화학 17) 글캠 총학생회장(이하 박 회장) 은 "코로나19가 안정됐을 시의 모 교방문단 파견을 하기 위한 준비는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다"며 "예산 편성과 학교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된 후 현재 모집 준비 중인 단 계"라며시행할의지를보였다.

박소진(상경 · 국통 19) 씨는 어 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본인의 일 을 한 우리학교 총학에 대한 자랑 스러움을 표했다. 이에 김 회장은 "총학에 대한 학우의 뜨거운 반응



2020학년도 여름학기(제46기) 신입생 모집안내

- 국내 유일의 언어권별(영, 중, 일) 맞춤 이론 수업 진행
- 실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실습 수업 실시
- 40년 전통의 한국어교육의 산실 한국외대 한국어 교육과의 노하우 전수
- 한국어교육 권위자 허용 교수
- (Marquis Who's Who 등재) 직접 강의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대비 특강 제공
- 우수 수료자 대상 본 원 강사 채용 시 가산점 부여

● 교육일정

2020년 7월 13일(월)~8월 14일(금) 월~금 / 9:20~17:30 (총 130시간 과정)

● 원서접수 및 지원자격

원서접수: 2020년 6월 8일(월) 오전 10시~6월 17일(수) 오후 4시 지원자격: 고교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

(단,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토픽 6급 소지자 또는 어학당 6급 수료자)

접수방법: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상세 내용 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www.korean.ac.kr)

전 형료: 20.000원

등 록 금: 1,490,000원(교재비 포함)

● 문의처

하국어무화교육원 운영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외국어연수평가원 102호)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전화. 02-2173-2610 / 이메일. cklace@hufs.ac.kr





낮은 성인지 감수성, 모두를 위해 필요한 변화

최근 우리학교 경영대 L명예교수 (이하 L 교수)가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L 교수가 '경영정보학개론'(이하 경정개)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지정한 글에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해당 글에서 L 교수는 남성을 물에 비유하는 한편 여성은 꽃에 비유하는 등 성차별적 인식을 보였다. 이에 일부

재학생은 L 교수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triangle 해당 사건의 전개 과정 \triangle 학교와 재학생의 입장 \triangle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L 교수의 글로 불거진 성인지 감수성 논란

논란은 L 교수가 경정개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자신의 수필을 지 정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글은 2009년에 L 교수가 출간한 '대통령의 여인' 이란 수필집에 포함된 내용으로 개인 블로그에도 게시된 바 있 다. 수강생은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 이를 필수적으로 읽어야 했다. 그 러나 해당 수필엔 성차별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 수필 중 하나인 '왜 사느냐고? - 남자는 물, 여자는 꽃' 에선 남성은 물뿌리개에, 여성은 꽃에 비유됐다. 또한 '집 꽃에 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집 꽃이 시들면 남자 손해이다'등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는 부적절한 내용이 실려 있었다. 다른 수필에선 '남자는 △논리적△언어적△능 동적이지만 여자는 △직관적△공간적△수동적이다'혹은 '이공계열 여자들은 야한 면이라곤 찾아볼 수 없어 불만이다' 며 성차별적 인식 을 드러냈다. 이 외에도 '유흥주점에서 도우미와 유흥을 즐기다 립스 틱 자국 때문에 아내에게 그 사실을 들켰다' 와 같은 일화를 묘사한 수 필도 블로그에 게재돼있었다. 이에 수강생은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에서 수필 내용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하며 L 교수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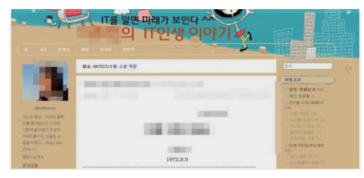
지난달 20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 (이하 설캠 총학) 중앙운영위원회는 "우리는 당신의 글을 '혐오' 라 부른다"란 제목의 성명문을 게재했다. 해당 성명문은 L 교수의 사과와 사임을 주장했다. 이어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며 대상화한 사고방식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하며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태도와 특정 집단의 여성을 품평하며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L 교수의 사과△교수직 사임 △명예교수직 박탈△학교 측의 재발 방지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설캠 총학은 온라인수업 녹화분 중 부적절한 영상을 노출한 바 있던 A 교수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A 교수와 L 교수 사건 모두 우리학교 교수 사회의 저조한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낸 사건이라 강조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L 교수는 경정개의 수강생이 모여있는 SNS에 수업 관련 공지사항과 함께 입장문을 게재했다. 이를 통해 L 교수는 "해당 수필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재학생에게 미안하고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세상은 변해가고 있는데 내 생각만 과거에 남아 해당 수필이 문제없을 것이라 여겼다"고 사과했다.

◆학교의 대처와 계속되는 논란

지난달 25일, 학교 측은 L 교수 관련 논의 결과를 설캠 총학에 전달했다. 해당 논의엔 △경영대학장△서울부총장△양 캠퍼스 교무처장△총장이 참석했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L 교수의 강의 정지△대체 강사 투입△성평등센터 조사위원회에 본 건 회부△L 교수의 블로그 폐쇄와 사과문 게재 요청이 결정됐다. 이에 L 교수는 경정개의 수강생이 모여있는 온라인 카페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를 통해 "본인의의도와 무관하게 일부 내용이 부적절했고 재학생에게 불쾌감을 주었음을 인정한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수강생은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강생 A 씨는 "사과문의 제목을 '시과문'이라 잘못 게재하고 부적절한 수필 내용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 진정성이 와닿지 않았다"며 변명 같은 사과문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우리학교 성평등센터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추후 결과는 비공개 처리됐다.

L 교수가 경정개의 교수직에서 물러났으나 수강생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해당 교수가 물러난 뒤 대체된 경영대학 B 교수가 하루 만에 경영대학 C 교수로 다시 교체된 것이다. 이후 C 교수는 문제의 발단이 됐던 기존의 수필 과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12주차 강의 또한 L 교수 강의 녹화본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게다가 C 교수는 경정개 수강생에게 개인적으로 L 교수를 두둔하는 내용의 메일을 돌린 바 있다. 이에 수강생은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수강생 A 씨는 "경영정보학을 전공하지 않은 C 교수로 대체된 것이 이



▲논란의 수필이 게재됐던 L 교수의 블로그 (출처: 블로그 캡처)

우리는 당신의 글을 '혐오'라고 부른다.

-경영대학 L 교수 여성형오적 계시를 열람 강요 및 사이버 성희롱 사건 관련 한국외국어대학교 제54대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지난 5월 16일, 교내 독립인론 '외대알리'는 정영정보학계론 담당교원 L 교수가 개인 블로그에 여성함으적 계 시글을 다당 개재하였으며, 해당 개시들의 그대로 해당 강의 수강생들에게 노출되었음을 알폈다. 제54대 중앙운영위원회 는 관련 사건의 사실 확인 작업에 착수하였고, 해당 교원이 2020-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로 '더 맺어요? - 남자는 장, 어자는 끼', '왜 사느냐고? - 남자는 물, 여자는 꽃과 같은 제목의 여성형오적 개시물을 포함한 본인의 글을 수강생들에 게 읽도록 강제됐음을 확인하였다.

경영정보학개론 담당교원 L 교수는 여성혐오적 발언을 반성하고 수강생들과 외대 구성원에게 사과하라.

제54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계사물의 내용에 경악을 급치 못하였다. 계사물에서는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여기며 대상화하는 사고방식이 여실히 드러났다. 여성을 '성너' 혹은 '창너'로 이분하며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태도, 독경 집단의 여성을 통명하며 동등한 인격체로 촌중하지 않는 행태를 규만한다. 해당 강의 수강생물은 중간 교사에 응시하기 위해라도 여성현오적 계사물을 읽어야 했다. 이는 담당교원의 권위에 기반한 맹백한 폭력이자 성화통이다. L 교수는 하루빨리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차별적, 폭력적 인행에 대하여 수강생들과 외대 구성원에게 관계적으로 사과하라.

담당교원 L 교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책임지고 교단에서 내려오라. 교수가 게시한 글에는 L 교수 본인이 성매매 업소 밀집 지역

교수가 게시한 글에는 L 교수 본인이 성폐매 업소 밀접 지역에 방문한 기록 또한 남아있었다. 그곳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 착취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성매매 업소 밀접 지역에 다녀온 것을 일종의 '기행답記行 값'으로 취급하였다. 심지어 이를 공개된 공간에 게제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남성의 본능'이라는 하상을 취고 여성을 착취하는 구조에 가담하는 교수는 교육자로서 교단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 L 교수는 해당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교단에 서 내려와야하며, 뭐예교소라는 이를 또한 태어놓아야 한다.

교수사회 내 성차별적 문화를 반성하고 재발방지 조치 마련을 약속하라.

'한국정치지성사' 강의 영상 내 용만를 노출 사건이 일어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았다. 두 사건 모두 외대 교 수 사회의 저조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갑 일이 드러낸 사건임에 틀림없다. 외대 교수사회는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교원에 의해 불쾌강과 수치성을 느낀 이 사건에 대해 부끄러움과 경각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외대 교수진은 교수사회 내 차별적이고 행오적인 문화를 반성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L 교수는 여성형으적 발언을 반성하고 수강생들과 외대 구성원에게 사과하라. 하나, L 교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책임지고 교단에서 내려오라.

하나, 외대 교수진은 교수사회 내 성차별적 문화를 반성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라.

2020.05.20. 한국외국어대학교 제54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L 교수 논란에 대한 설캠 총학 성명문 (출처: 설캠 총학 인스타그램)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원격강의임에도 최선을 다했으나 담당교수인 제 부족함이 컸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공개 게재된 글들이 비록 10년, 30년 전의 수필들이지만, 글의 취지나 글쓴이의 의도와 무관하게 일부 내용이 부적절했고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음을 인정합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제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큰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저의 성인지감수성을 다시 진단하고 새로운 삶의 자세로 임하려 합니다. 이미 카톡으로 밝혔지만 다시 한 번 미안하다고 유감의 뜻을

아울러, 불필요한 사건으로 지난 34년 간 몸담았던 우리 외대의 명예를 잠시라도 실추시켰음에, 교수님 들과 그리고 학교 구성원 모든 분께도 죄송한 마음 을 전할 계획임을 미리 알립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해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triangle 강의 \triangle 과제 \triangle 팀프로젝트 모두 \triangle 교 수의 방식대로 이어가는 현 상황에 의문을 표했다.

한편 L 교수는 온라인 카페 공지사항으로 "경영대학장과 논의 결과 강의 내용과 온라인 카페 운영 방식에 익숙한 C 교수를 대체 강사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영대 학생회는 수강생의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수강생의 의견을 수렴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성적평가 방식을 도입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달 28일. 경영대 학생회는 'L 교수 경영정보학개론 수강생 피해사례조사'를 시행했다. 이후 피해사례 취합본을 바탕으로 이번 달 4일 기준 경영대학장, 경영대 학부장과 면담을 진행 중이다.

◆변화하는 사회, 발맞춰가려는 대학

현재 사회에선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8년 안 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권력형 성폭행 사건의 재판에선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 근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여성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n번방' 사건 재판에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하 오 부장판사)가 배정되자 대중은 교체를 요구했다. 오 부장판사의 이전 판결에 나타난 성인지 감수성이 낮았단 이유에서다.

대학가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2018년 10월, 고려대학교 측은 재학생을 성추행했단 의혹을 받은 D 교수를 파면조치했다. 연세대학교 측은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 말한 류석춘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언론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과 더불어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특화되고 개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학교 또한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3월 수업 중 불미스러운 동영상 수신 노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성평등센터 관계 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성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우리학교는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폭력 예방 교육'을 학내모든 구성원이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2학기 시범 운영된 교육은 이번 해부터 정식 시행됐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학생과 교원 모두 종합정보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내 폭력 예방 교육△온라인교육△전문 강사를통한 집합 교육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런 교육 이수와 같이 우리학교의 성인지 감수성 재고를 위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성인지 감수성: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

급감한 아르바이트 구인공고, 대학생 생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 활동 위축 으로 실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생 생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음식점△학원△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운영 시간을 축소하며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구인 자리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알바 수입에 의존하는 대학생은 경제적 어려 움에 처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 생계△알 바 구인 현황△대안 및 전망을 살펴보자.

◆줄어든 알바 구인공고, 휘청이는 대학생 생계

외대학보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총 4일간 대학생 15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 생계 불안 실태조사' 를 실시했다. 이 중 70.1%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 고 답했다. 소득감소 원인엔 '알바 해고' 가 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근무시 간 단축'이 37.3%, '시급 감축'이 4.9%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자영 업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고 이는 알바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대학생 의 생계까지 영향을 미쳤다. 다수의 고용주가 당장 고정 지출 비용을 최

소화하기 위해 인건비를 축소한 것이다. 인력 조정은 영세업 자뿐만 아니라 대기업 직영 점포에서도 이뤄졌다. 영화관의 경우 관객 수가 급격히 감소해 $\triangle CGV \triangle 롯데시네마 \triangle 메가박$ 스 모두 상영 시간을 대폭 축소했고 이는 인력 감축으로 이어 졌다. 더불어 대기업 직영의 드러그스토어(Drugstore) 또한 인력 감축에 나섰다. 한 드러그스토어에서 근무하다 계약기 간 만료로 일을 그만두게 된 안소민(아시아 · 몽골어 19) 씨는 "원래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었지만 이번엔 계 약이 해지 됐다"고 밝혔다.

대학생 알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 판매 관련 직무 가 급감하며 기존 알바생의 근무 시간이 단축된 경우도 발생 했다. 현재 샌드위치 체인점 에그드랍(Eggdrop)에서 일하고 있는 최지원(아시아·이란어 19) 씨(이하 최 씨)는 3개월 동안 근무 시간이 단축돼 소득이 줄어 허리띠를 졸라맸다. 최 씨는 "지금 당장은 소득이 원상복구 됐지만 언제 또 다시 상황이 악 화될지 몰라 불안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 밖의 분야에도 코로나19는 악영향을 끼쳤다. 실태조사에 서 한 학생은 "두 건의 과외를 하고 있었으나 한 학부모가 일 방적으로 해고해 월 소득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다른 과외 학생을 찾고 있지만 구하기 쉽지 않고 부모님께 금전적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심란하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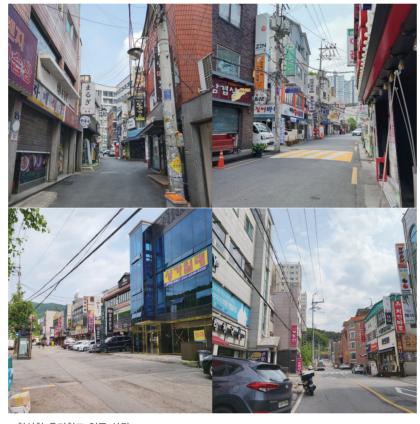


이번 해 1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활동은 위축됐고 실물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알바생을 고용해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일부 매장은 기존 인력을 감축하고 운영 단축에 나섰 다. 이에 알바 구인공고는 급감했다. 알바 구인 · 구직 포털 사이트 알바 천국에 의하면 이번 해 1월과 2월 구인공고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 을 띠었다. 하지만 3월부턴 지난해와 비교해 매달 40%가량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각 대학은 비대면 강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학가 상권은 주요 소비층인 학생의 부재에 직면했다. 우리학교 또한 코

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수업을 최소화했고 이로 인해 인근 상권 은 난항을 겪고 있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내부와 인근의 일부 가게 는 영업을 중단했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했다. 기숙사 훕스돔(Hufs Dorm) 내 카페 '커피앤' 의 경우 지난 3개월간 잠정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이 번달 1일, 영업시간을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하루 2시간으로 대폭 단축 해 운영을 재개했지만 가게는 여전히 한적하다. 커피앤 직원 A 씨는 "거 의 손님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다"고 말했다. 저녁 시간대 캠퍼스 주 변 음식점과 주점엔 빈자리가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2시간씩 영업시간 을 단축한 식당 '엄마손 칼국수' 운영자 B 씨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한산한 우리학교 인근 상권

매장 매출이 절반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기존엔 4명의 알바생을 채용 했지만 현재는 근무 시간을 짧게 조정해 2, 3명이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프집 '미쳐버린 파닭' 은 영업시간을 4시간 단축했다. 미쳐버린 파닭 직원은 "가게 사정이 어려워져 알바생 4명을 모두 돌려보냈다"며 해당 학생에게 미안함을 표했다. 학교 근처에서 알바를 하려고 했던 학생은 난 처한 상황에 부딪혔다. 실태조사에서 한 학생은 "학교 근처에서 알바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려 했는데 구인공고를 내는 곳이 없다"고 걱정을

서울캠퍼스 근처 상권도 마찬가지다. 기존 주민과 상당수의 학생이 학 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만 비대면 강의로 인한 매출 하락은 피할 수 없 었다. 알바 구인공고는 지난해와 비교해 확연히 줄었다.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외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수민(상경 · 국통 18) 씨(이하 진 씨)는 비대면 강의 연장이 확정된 후 알바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 다. 진 씨는 "학교 인근 알바 자리가 감소했음을 체감했다"며 "비대면 강 의 실시 이후 손님이 급격히 줄어 학교 인근 가게 대부분이 영업 단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프집 '비스마르크'의 가게 수익은 지난해와 비

> 교했을 때 80% 이상 감소했다. 가게를 운영 중인 안창남 씨(이하 안 씨)는 이전과 같은 시간에 가게를 열고 있지만 마감은 4시간가 량 앞당겼다. 안 씨는 "기존에 같이 하고 있는 알바생은 계속 함께 하고 있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가게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 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려운 대학생 생계, 구제 정책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하반기 알바 구인 전망은 불투명하다. 알 바 취업 포털 사이트 알바몬에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 기 알바생 채용계획'설문조사에 따르면 43%가 △아직 결정 못 함△상황 지켜보고 판단△채용계획 없음에 답했다.

이번 달, 동대문구청은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인원을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 용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청에선 여름방학 대학생 알 바 400명을 모집하고 있다. 더불어 청년 892명에게 '신속 청년수 당'을 지급했다. 신속 청년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해고된 청년에게 3 · 4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면 글캠이 속한 용인시청은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공고를 게시 하지 않은 상태다.

각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대학생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해 2학기부터 기 존 2%였던 학자금 대출 금리를 1.85%로 인하했다. 이로써 지난 해와 비교해 약 130만 명의 이자 부담이 174억 원가량 줄어들 것 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실직 · 폐업자에 대한 국가 장학금 우선 추가 지원 및 대출 상황 유예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당장 소득 감소로 생계 불안에 직면한 대학생에게 이와 같은 정 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정규연(아시아 · 몽골어 19) 씨는 "이 같은 정책 은 도움이 되지만 체감상 효과는 미약하다"며 "근본적으로 월 소득을 보 장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 돼야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학생 생계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

김미정 기자 100kimmijung@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0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2020학년도 후기 입시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0.4.21.(화) ~ 5.4.(월)	2020.5.25.(월) ~ 6.5.(금)
고사장 발표	5.6.(수) 15:00	6.10.(수) 15:00
면접전형	5.9(토) 10:00 예정	6. 1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5.20.(수) 14:00	6.24.(수) 14:00
등록예치금 납부	5.25.(월) ~ 5.29.(금)	6.29.(월) ~ 7.3.(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별전형은학사과정총평점평균이3.0(4.5만점기준)이상인자 *평균기준:3.0(4.5만점),2.8(4.3만점),2.5(4.0만점),85(100점만점)이싱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학고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문학 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1) 인한워서 1부(워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축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 가능)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5) 힉럭소외동식시 [커.편는]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 (Aposili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기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로 졸업 기능(하업 우수자)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한과), 한국어번역과정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3.1 독립선언서」를 세계만방에 고하다!



ДЕКЛАРАЦИЯ НА НЕЗАВИСИМОСТТА



번역
Lyudmila Atanasova 한국외대 그리스-불가리아학과 조교수

감수 **최권진** 인하대 국제학부 교수

С настоящата декларация ние провъзгласяваме Чосон за независима държава и народа на Чосон за свободен народ.

Обрыщаме се към света като твърдо заявяваме стремежа си към възвишената цел за равенство между хората и възвестяваме на бъдещите поколения изконното им право на независимо съществуване за вечни времена.

Оповестяваме независимостта си като се уповаваме на петхилядолетната си история и на сплотената преданост на двайсетте милиона наши сънародници, за да постигнем всевечен свободен възход на нашия народ и за да вървим напред в крак с големите възможности, които предоставя новият свят на събудената човешка съвест. Това е повелята на небесата, това е посоката на нашето време, това е закономерният устрем на цялото човечество към съвместно съществуване. Нищо на света не може да въпрепятства или потисне това развитие.

Жертва сме на агресия и деспотизъм – отживелици от миналото, и за първи път от хилядолетия насам, вече повече от десет години страдаме под чужда тирания. Колко от правата ни на нормален живот са отнети от нас? Колко пречки са издигнати пред духовния ни прогрес? Колко накърнено е нашето национално достойнство? Колко са пропуснатите възможности да допринесем с иновативност и творчество за световния културен подем?

За да отприщим гнета от миналото и да се отървем от настоящите страдания, за да премахнем заплахите за нашето бъдеще, за да извисим и разгърнем свитото си чезнещо народно съзнание и национална чест, за да възпитаваме характерите на отделните индивиди, за да не завещаваме на клетите си деца мъчения и срам, а да им осигурим вечно благоденствие, нашата най-неотложна задача е да постигнем независимостта на нашия народ. Всеки един от двадесетте милиона души носи нож в своето сърце. Днес ние имаме подкрепата на човечността и на съвестта на времето, които са нашата армия на справедливостта и нашето оръжие на хуманността. Да вървим напред! Никой, колкото и да е силен няма да ни се опре, ще го отблъснем и ще постигнем своите цели!

След сключването на Договора за протекция през 1876 г., Япония наруши редица важни споразумения, но ние не сме тук, за да я обвиняваме в измяна, защото там учителите в класните стаи и политиците в реалния живот гледат на наследството, завещано ни от нашите крале като на свое достояние и выпреки че имаме високоразвита култура, ни трегират като диваци, само за да удовлетворят завоевателските

си стремежи. Те не зачитат дълбоките устои на нашето общество и нашия национален характер, но нашето намерение не е да критикуваме ниските морални ценности на Япония. Ние сме прекалено заети да вървим напред, за да имаме време да ненавиждаме другите. Ние сме прекалено концентрирани върху осигуряването на нашето настояще, за да имаме време да търсим възмездие за минали прегрешения. Нашата задача днес е да изграждаме сами себе си, а не да разрушаваме другите. Целта ни е да градим своята нова съдба като следваме строго съвестта си, а не да отблъскваме злобно другите заради стара ненавист или моментни емоции. Ние ще променим и ще подобрим това неестествено и нелогично нелепо състояние на жертва на тщеславието на японските политици, които са омотани в юздите на остарели идеи и влияния. Ще се върнем към естествените и логични изначални правдини.

Поначало присъединяването ни към Япония беше осъществено против волята на народа и в крайна сметка доведе до задушаващо потисничество, дискриминация, неравенство и парадиране с фалшиви статистически данни. Вижте резултатите днес – интересите на двата народа се разминават и постигането на разбирателство става завинаги невъзможно, докато разделението на омразата постоянно се задълбочава. Не е ли очевидно, че и за двата народа най-краткият път за избягване на злото и за постигане на благоденствие е бързо, решително и смело да поправим грешките от миналото като направим обрат и установим приятелски отношения, основани на взаимно разбирателство и сыпричастност? Освен това насилственият контрол върху изпълнени с гняв и ненавист двадесет милиона души, не само че няма да осигури вечния мир на Изтока, а ще засили безпокойството и недоверието към Япония на четиристотин милионния Китай, който представлява оста на сигурност на Изтока. Това ще доведе до катастрофални последици и падение на целия Изток.

Независимостта на Чосон ще осигури пълноценен живот на народа ни. В същото време тя ще помогне на Япония да се опкаже от погрешния път, по който е тръгнала и да изпълни важната си отговорност на крепител на Изтока, а на Китай – да се отърве от тревогите и страха, от които не може да избяга даже в тежкия си сън. Тя е и необходима стъпка към постигането на световен мир и благополучие за цялото човечество, от които мирът в Изтока е важна част. Как може това да е само мимолетен изблик на емоции!

Ах, пред очите ни се разгръща нов свят! Епохата на насилието си отива и идва ерата на добродетелта. Общочовешките ценности, изковани през вековете на отминалите времена започват да огряват историята с лъчите на нова цивилизация. Нова пролет идва над света и събужда всичко за нов живот. Досега смразяващият студ спираше дъха ни, но сега топлият вятър и слънчевите лъчи карат кръвта да кипи във вените ни. С възвърнатите сили на небето и земята, яхнали вълната на новите световни идеи, няма защо да се колебаем и няма от какво да се боим. Ще отстояваме изконното си право да бъдем свободни, ще се наслаждаваме на живота, ще разкриваме творческите си способности и в света, изпълнен с пролетен дух ще развиваме чистата и свята същност на своя

기미독립선언서 - 불가리아어 번역

Затова се събуждаме днес. Съвестта е на наша страна и с истината заедно ще вървим напред. Млади и стари, нека да се надигнем от мрачните постели и в хармония с всички живи същества да постигнем бодро радостно възраждане. От отвъд ни подкрегит нашите деди, а ходът на събитията по целия свят е нашата защита отвън, затова началото е вече успех. Остава само да вървим напред устремени към светлината!

Обещание (в три клаузи)

народ.

- 1. Ние се вдигаме днес по волята на народа в името на справедливостта, хуманността, живота и достойнството си. Нека да даваме израз само на свободния си дух и да не допускаме негативни емоции срещу другите да ни отклонят от нашата пел.
- 2. Нека до последния човек, до последния момент уверено да заявяваме волята на народа.
- Нека с всички наши действия да спазваме реда. Нека твърденията и поведението ни да е открито и правдиво.

Първият ден на третия месец, 4252 година от основаването на Чосон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 народа на Чосон:

Сон Бьонгхи, Кил Солджу, И Пилджу, Пек Йонгсонг, Ким Уангю, Ким Бьонгджо, Ким Чангджун, Куон Донгджин, Куон Бьонгдок, На Йонгхуан, На Инхьоп, Янг Сунбек, Янг Ханмук, Ю Йоде, И Гапсонг, И Мьонгньонг, И Сънгхун, ИДжонгхун, ИДжонгил, Им Йехуан, Пак Джунсьнг, Пак Хидо, Пак Донгуан, Шин Хонгшик, Шин Сокку, О Сечанг, О Хуайонг, Чонг Чунсу, Чой Сонгмо, Чой Рин, Хан Йонгун, Хонг Бьонги, Хонг Гиджо

영화 '냉정과 열정사이', 그 안의 이탈리아 피렌체

에쿠니 가오리의 '냉정과 열정사이'는 이탈리아 피렌체를 배경으로 한 연애소설로 영화로도 제작됐다. 이후 피렌체의 풍경은 영화에 등 장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피렌체는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지방에 위치한 대도시로 아르노강 연변의 교통로와 아펜니노 산맥을 넘는 교통로의 요지다. 또한 중세·르네상스 시대 건축과 예술로도 유명했던 도시기도 하다. 이 곳에선 △단테△미켈란젤로△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수많은 예술가가 배출됐다. 영화 속에 등장한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우피치 미술관△미켈란젤로 광장에 대해 알아보자.



▲피렌체 두오모 성당 (출처: 게티 이미지뱅크)

영화 속 등장한 두오모 성당은 피렌체의 상징이나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성당이다. 정식 명칭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Santa Maria del Fiore) 대성당이다. 1296년 아르놀포 디 캄비오가 설계를 시작한 이후 1436년 완공되기까지 무려 140년이 걸렸다. 팔각형 모양의 돔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성당의 실외는 하얀색으로 윤곽선을 두른 초록색과 분홍색의 대리석 판으로 마감돼 있다.

우피치(uffizi)미술관은 고대 그리스의 작품부터 렘브란트의 작품까지 다양한 소장품과 르네상스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14세기에서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뿐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의 르네상스 화가들의 주요 작품 역시 전시돼있다. 유명 소장품으로는 보타젤리의 '비너스의 탄생' 과 '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 등이 있다.

영화 포스터에도 등장한 미켈란젤로 광장은 피렌체 도심의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전경을 자랑한다. 미켈란젤로 광장은 1869년 건축가 주세페 포지가 본래 높던 담장을 일부 허물며 아르노강 남동쪽 언덕을 재개발하며 설계한 것이다. 광장 중앙엔 미켈란젤로 탄생 400주년을 기념해 세워진 '다비드석상'의 복제품이 세워져 있다. 이곳은 도시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테라스 형태의 광장으로 피렌체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이처럼 르네상스 시대의 화려함을 간직한 피렌체는 죽기 전 꼭 가봐야 할 장소로 꼽히기도 한다. 수많은 소설과 영화의 배경으로 선정될 만큼 아름다운 꽃의 도시 피렌체 곳곳을 둘러보기 바란다.

이서미 기자 99seomi@hufs.ac.kr

HUFS tory 응답하라 1970's 사진으로보는 기록과 **오ICH人**

외대학보로 읽는 반세기 전 외대 (5)

글로벌캠퍼스. 불혹(不惑)에 이르다



▲글로벌캠퍼스 기공식(1980,7.1)]



▲글로벌캠퍼스 마스터플랜 조감도(1980.8)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는 우리학교가 외국어 중심 단과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우뚝 서게 된 증표다. 우리학교는 1970년대 중후반 양적 팽창을 질적 발전으로 전환시키며 새로운 도약을 이 뤘다. 대학 규모는 △교육학부△법정학부△상 경학부△외국어학부 등 학부를 4개로 편제한 1968년 이후로 답보 상태였다. 그러나 1979년 9월, 용인 분교(당시 명칭)의 설립인기를 받음으로써 종합대학 승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제2캠퍼스의 건립으로 인해 우리학교는 '어학능력 + α', 즉 글로벌 융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구현에 한걸음 더다가설 수 있게됐다.

1979년 우리학교의 가장 큰 화두는 캠퍼스 공 간확장과 이를 기반으로 한 종합대학 승격이었 다. 당시 우리나라엔 정부의 수도권 인구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서울 소재 대학의 분교 설치가 붐을 이뤘다. △건국대△경희대△고려대△단국대△동국대△연에대△중앙대 등이 이 시기에비슷하게 지방 분교를 설립했다. 우리학교의 경우1979년 4월 21일 김흥배이사장이 개교 25주년 인터뷰에서 제2캠퍼스 건립을 언급하며 관련 계획이

공론회됐다. 이후 분교 건립 작업은 빠른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같은 해 9월엔 캠퍼스 부지 확보와 분교 설립승인이 이뤄졌다. 1980년 10월 2일엔 종합대학교 승격 인가를 받게 됐다. 이후 곧 10월 17일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용인캠 퍼스종합계획이 공개됐다. 이날 18만㎡ 부지에 △강의실△기숙사△도서관△소극장△박물관 등의 건물을 지어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룬 우 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를 조성하겠 단목표도제시됐다.

이보다 앞선 1980년 7월 1일엔 글캠의 첫 건물 인 어문학관의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뜨는 기공 식이 거행되며 글캠 40년의 역사가 시작됐다. 1982년, '용인대학'의 편제를 '용인캠퍼스'로 조정해 글캠에도 다양한 단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986년엔 4차선 진입로와 명 수당 연못을 조성해 캠퍼스의 기본 구조와 관련한 일련의 공사를 마무리했다. 1987엔 △동양어 문대학△문리과대학△사회과학대학△서양어 문대학 등 4개 단과대학과 29개 학과가 자리 잡게 된다. 그뒤 1988년에 문리과대학을 인문대학과 자연과학대학으로 분리했고 1995년엔 자연과학대학에 소속된 공학계열학과를 나눠 정보산업공과대학을 신설했다. 이로써 글캠은 인문과이공계열의 단과대학을 고루 갖춘 종합캠퍼스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동시에 어문학뿐이니라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공학 분야의 단과대학을 갖추며 오늘날 융복합학문을 교수・연구할수 있는 대학으로 발돋움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수 있었다.

이런 성과는 학과 편제의 개편이나 시설의 건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학교와 학생 간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이뤄낼 수 있었다. 양캠퍼스 간수업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순환교수제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 전임교수제 등을 도입하기도 했다. 또한 이중전공 등의 학생이 전문적지식을쌓을 수 있도록하는 교육시스템 개선은소통이 전제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외대 역사관에서는 그 시절 추억이 담긴 서울캠퍼스와 미네르바 동산 관련 사진 기록물을 수집합니다. 동문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증 문 의- 외대 역사관: 02-2173-3981)

-기록 및 사진 제공 : 역사관

코로나19등록금 논란, 그 파장이 닿을 곳은?

37/6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줄이고자 이번 학기 대부분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학교 시설 사용 불 가와 수업 질 하락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학교는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학기 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대학 등록금 논란△우리학교 재학생의 입장△우 리학교 및 총학생회 대응△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19로 인해 대두된 등록금 논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학교에 비대면 강의의 바람이 불었다. 지 난달 15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대면수업안내' 조사결 과에 따르면 이번 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4년제 대학 은 전체 193개교 중 80개교로 41.5%다.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무기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4년제 대학은 85개교로 44%였

우리학교도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대부분 수업을 비대면 으로 진행 중이다. 비대면 수업은 △실시간 원격 수업△e-Class 에 음성수업 및 자료 업로드△수업 동영상 '유튜브'업로드 후 e-Class에 링크게시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이에 재학생은 기존 대면 수업과 비교했을 때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 시설을 이 용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 하고 있다.

한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가 국내 203개 대 학에 재학 중인 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등록 금 반환 협의 및 대학생 경제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설문조사'에 서 응답자의 99.2%는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 고 답한 바 있다.

◆등록금 논란에 대한 재학생의 생각

외대학보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우리학교 재학생 44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일부 반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등록금 일부 반환이 필요하다' 고 답한 사람은 99.5%였다. 그 이유론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서' 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비대면 수업의 질이 기존 대면수업 보다 떨어진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등록금 반환 방식으론 △ 80.9%가 이미 납부한 1학기 등록금에 대한 일부 반환△14.4% 가 다음 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4.1%가 학생 형편에 따른 특별 장학금 지급을 답했다. 또 감면 \cdot 장학금 금액에 대해선 $\triangle 64.8\%$ 는 납부한 등록금에 비례△22.7%는 재학생 모두에게 동일△ 12%는 실험·실습 등 계열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단 답변이 있 었다. 비대면 수업 전반에 대해 신가희(국제지역·한국 19) 씨는 "대면 수업과 비교했을 때 낮은 질의 수업이었다"고 아쉬움을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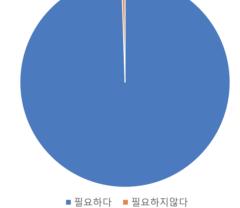
반면 등록금 일부 반환이 필요하지 않단 의견도 있었다. 그 이유 론 △충분한 양질의 수업 제공△등록금으로 학교 측의 비대면 수 업 진행 비용 충당△등록금 사용 대상이 학생이므로 반환 불필요 등의 사유가 있었다.

한편 등록금에 실험 · 실습비가 포함돼 있는 △공과대학△글로 벌스포츠산업학부△자연과학대학은 대부분 원활한 실험 · 실습 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유하준(공과·산업경영 14) 씨는 "다른 과에 비해 실습 비중이 적은 편임에도 동일한 실습비를 지불했 지만 이번 비대면 수업 중 실습에 대한 학교 측 지원은 없었다"며 "학교 연구실에 있는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해 개인 컴퓨 터에 30일 무료 평가판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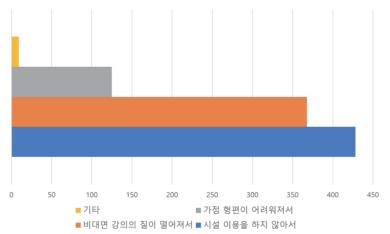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대응책

우리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계곤란에 처한 재학생에게 특별 장학금인 'HUFS Dream 장학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의 여파 로 이번 해 1월부터 5월까지 부모의 실직·폐업을 겪은 재학생과 경제 사정이 곤란해진 재학생이 그 대상이다. 학교 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양 캠퍼스 장학팀은 이번 달 5일까지 등기우편이나 방문접수로 이 를 신청받았다. 임종훈 우리학교 기획조정처 예산지원팀 팀장(이 하임팀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가계가 곤란해진 학생을 위해 새로운 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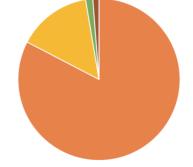
등록금 일부 반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등록금 일부 반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록금 일부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뤄져야 하는가?



- 이미 납부한 1학기 등록금에 대한 일부 반환
- 다음 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 ■학생 형편에 따른 특별 장학금 지급
- ■기타

4월 3일,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이하 글캠 총학) '더 본(The 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원격강의 연장에 따른 학사제도 요구 인'을 통해 등록금 반환과 코로나19 관련 지출 및 예산안 공개를 요청했다. 이어 학교 측에 전체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 식도 제안했다. 또한 이번 달 3일 글캠 총학은 등록금 반환 관련 요구안을 학교 측에 전송했다. 박장원(자연·화학 17) 글캠 총학 생회장은 학교 측에 실험 · 실습비와 관련한 등록금 일부 환불을 언급했음을 밝혔다. 하지만 임 팀장은 "총학생회 요청이 있었단 것은 알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은 없다"고 전했다.

4월 10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는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 사태 학생 권리 보장을 위한 10대 추가 요구안'을 통해 등록금 사용 내역 심의 및 일부 반환 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나현(서양어 · 프랑스 15)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우리학교가 타 학교와 비교해 가용할 수 있는 적립금이 적은 편 이라 각 단과대학·학부별로 비축해둔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며 학교 측이 정부 ·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대학 등록금 논란, 학생과 학교의 합의점은 어디에

우리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경희대학교△연세대학 교△서강대학교△성균관대학교(이하 성대) 등 주변 대학도 등록 금 반환과 관련한 학교 측 대응은 없다. 다만 성대의 경우 '학생성 공-디딤돌장학금'으로 학생 556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 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이다.

지난달 14일, 전대넷과 전대넷이 조직한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 (이하 등록금 운동본부)'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 견을 열었다. 이날 전대넷과 등록금 운동본부는 등록금 반환 소송 과 등록금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 다. 코로나19 상황이 4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국 300 만 대학생이 등록금만큼의 교육 · 수업권을 보장받고 있지 않단 것이다. 전대넷은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 제기를 위한 온라인 소송인단을 7월 초까지 모집 중이다. 한편 지 난 4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 육부 장관은 등록금 일부 반환 문제에 대해 각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므로 등록금 인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단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번 달 1일, 미래통합당은 '대학 등록금 환불법' 을 제21대 국 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했다. 이 법안은 국가재난상황에서 정 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음을 명 시하고 있다. 해당 정당은 대학 등록금 환불법을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에 포함해 발의했다. 기존의 고등교육법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엔 등록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실제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에선 '천재지변 등 으로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와 '학교의 수업을 휴 업한 경우'등에 해당될 시에만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대학 등록금 반환 논란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 의 컬럼비아대, 코넬대 등 50여 개 대학 재학생은 각 대학에 기숙 사비ㆍ등록금 일부 반환 요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에선 약 25만 명의 대학생이 기숙사비 및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교토예술대학과 미국 아이오와주 · 위스콘신주의 일부 대학 은 학생의 요구를 수용해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했다.

여전히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과 학교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한 학기가 끝나가는 가운데 학교와 교육부는 책임을 미루기보단 학생을 위한 진정한 대응책을 위해 힘써야 할 때다.

8 사회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외 대 학 보**

코로나19에 이어 우리나라를 덮친 갑질 바이러스

지난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동영상이 논란되며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 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약 1 년이 지난 지금까지 갑질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아파트 경비원 갑질 문제가

불거지며 현행법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렇듯 사회에 갑질이 만연한 가운데 △최근 갑질 사건△근로기준법의 한계점△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 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비껴간 우이동 경비원 갑질 사건

지난해 7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하 괴롭힘 금지법)이라 불리는 스근로기준법스산업안전보건법스산해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시행됐다.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갑질에 대한 법적 규율 기반을 마련했단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세 가지 요소인 스신체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스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경우스직장에서의 지위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동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후 사용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가해자를 징계 처분해야 한다. 만약 피해 직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에도 여전히 갑질 문화가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2,46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61.8%가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지난달 1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의 최희석 경비원 (이하 최 씨)이 입주민 심 씨에게 폭언 · 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27일, 심 씨는 검찰에 송치됐으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엔 심 씨를 처벌하란 글이 올라왔고 43만여 명이 동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앞선 사건을 언급하며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또는 동료 근로자로제한돼 있어 제3자가 가해자인 경우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파트 경비원은 주로 용역 업체를 통해 고용된다. 따라서 입주민인 심 씨는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에 인권위는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갑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가 가해자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

괴롭힘 금지법은 그 개념과 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 기되고 있다. 첫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 하기 어렵다. 기업은 자율적 갑질 해소란 정책 취지에 맞게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를 정의해야 한다. 이에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노 동부가 발간한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등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한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 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판례 역시 단편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괴롭힘이 인정된다 해도 '업무상 적정범위' 란 기준이 불분명해 사업주가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적다. 실제로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후 8개월여 동안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2건에 불과했다. 심지어 갑질 피해 직장인을 돕는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 119'는 괴롭힘을 신고한 일부 직장인이 2차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스불이익 처우스신고 무시 등의 2차 가해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직장



▲ '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기자회견 현장 (출처: 연합뉴스)

갑질 119는 피해자의 신고가 사용자에게 공개되는 부분이 개정돼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재택근무가 실시되며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이번 해 3월, 취업정보 사이트 '사람인'에서 1,089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의 40.5%가 재택근무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재택근무로 인해 업무시간 외에도 메신저를 통해 지시하는 사례가 다수 등장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선 괴롭힘 금지법이 시대를 못 따라 오고 있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 상 업무시간이라도 업무상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과도한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시 횟수, 업무상 필요도를 측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피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직장갑질 119는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6개월 동안 조치의무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괴롭힘 금지법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괴롭힘 행위자 개념 확장△2차 피해 방지△노동청 직접 신고△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한단 것이다. 해외에서도 이런 논의가 꾸준히 진행됐다. 독일은 20년간의 판례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수립해 명확성을 높였다. 더불어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영국△프랑스△호주는 괴롭힘 방지법과 더불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중요성 또한 강조됐다. 문강분 행복한일 연구소 대표노무사는 "노조가 먼저 직장 내의 괴롭힘 실태조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해 노사협약을 진행해야 한단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주최한 '직장 내 괴롭힘과 노사관계' 토론회에서 현재 노조의 협약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단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노조의 협약 참여 기회를 보장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갑질 피해와 새로 운 근무 형태가 나타나는 가운데 괴롭힘 금지법이 노동자의 인권을 보 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현수 기자 100hyunx@hufs.ac.kr

이문일공칠은 한국외대 지식출판콘텐츠원 산하 기구입니다.

about 이문일공칠



문화상점 이문일공칠은

'외대서림'이라는 대학 서점 이미지에서 벗어나, 대학과 지역 주민을 연결하는 문화 창구가 되고자 2019년 11월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적 · 문화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대문구에 지식과 교양, 문화와 예술의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이문일공칠은 서울시캠퍼스타운사업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보 및 도서 담당 제갈승현 F-mail info imun107@an

E-mail_ info.imun107@gmail.com Instagram_ @imun107_notice blog_ blog.naver.com/imun107_hufs



BOOK

이문일공칠 서점은 나의 생각을 넓힐 수 있는 지적 경험의 터입니다. 고민, 취향, 바람, 그리고 라이프스타일까지. 다양한 주제로 묶인 도서는 자유서적 이재필 이사가 큐레이션했습니다.



COFFEE

이문일공칠은 라마르조코와 협력해 최상의 원두와 커피 맛을 선보입니다. 더불어 커피 클래스를 개설해,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CULTURE

이문일공칠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기관, 단체, 동아리 등과 협업해 예술가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 갈림길에 선 복지정책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해결하고자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런 정부의 행보가 보편적 복 지의 일환인 기본소득을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시각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

의 복지형태△선별적 복지△보편적 복지에 대해 견진만 우리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다.

견진만 우리학교 행정학과 교수

Q1. 4월 7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에 따라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저소득 가구뿐만 아니라 △자영업자△프리랜서△특수형태고용노동자* 등도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또한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긴급복지지원과 긴급재난지원금이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해 이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와 같이 정부가 선정한 기준에 부합한 경우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일부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이라 할 수 있죠.

반면 지난달 11일부터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죠.

Q1-1.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의 시행이었는데, 보편적 복지가 무엇이며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보편적 복지란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전 국민 대상 복지정책을 일컫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같은 제도가 이에 해당되죠. 이른바 선진복지국가로 분류되는 일부 서·북유럽에선 대학 등록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면무상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Q2.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이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보편적 의료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료 민영화를 시행 중인 미국과 비교해 보면 그 격차는 상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방역모델 국가로 거론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익숙한 우리나라에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각인시킬기회가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여기서 조심스럽단 표현을 쓴 이유는 특정한 △국민성향△고유가치△문화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3.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선별적 복지는 무엇이며 보편적 복 지와 어떤 차이점을 가지나요?

전 국민을 상대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와 달리 선별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회계층에만 정책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경우 대부분 선별적 복지제도에 해당합니다. 대표적 사례가 국가장학금입니 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하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이는 영미주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신자유주의' 복지체제인데, 복지보다 시장의 자율성을 우선시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채택한다고 복수 있죠

Q3-1. 보편적 복지는 예방 차원의 복지이며 선별적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높지만 효율성은 떨어진단 지적이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 또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한단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할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회적 효율성과 형평성 중 무엇이 먼저인 가는 정치철학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국민의 성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쪽이 우리에게 유리하더라도 국민이 이에 동의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복지정책을 설계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정책 입안자의 근원적 과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효율성이냐 사회적 형평성이냐의 문제는 우선순위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4.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기본소득의 실험적 모델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기본소득이 정확히 무엇이 며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본소득이란 노동의 대가 없이 정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중의 하나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합니다. 에스핑 엔더슨(Gøsta Esping-Andersen) 사회복지학자는 이 개념을 이용해 인간의 '탈 상품화'를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탈 상품화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선 아무리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나라여도 '인간의 존엄'에 기반한 건강한 공동체를 실현할 수 없단 것입니다.

민주사회가 지향하는 '자유' 와 '평등' 을 시스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선 시장의 기능에만 의존해선 안 됩니다. 개인의 기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껍데기만 민주주의인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한 시스템을 타파하는 데 있어 기본소득이주목받고 있습니다.

Q5. 2017년 1월 핀란드는 전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실험이 시행됐습니다. 또한 북유럽 권 국가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도입 후 실제 성과는 어땠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효과는 무엇이었나요?

정치적 철학을 달리한 보수와 진보 사이에 이 정책을 둘러싼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핀란드의 기본소득 정책은 실험집단의 노동의욕을 고취시켰단 것입니다. 또한 실업률을 일정부분 개선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나 실험 자체의 여러 한계성과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5-1. 핀란드에선 기본소득이 시행과 함께 탈 근로와 같은 복지정책 역이용 사례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핀란드는 어떤 해결방안을 제시했나요?

바로 이 부분이 앞서 말한 실험의 한계를 가져온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핀란드는 실험 기간 도중 기본소득을 받는 동시에 '근로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기본소득으로 인해 노동의욕이 고취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험이 다 끝난 후 이 같은 해결방안을 내놓았으면 여러모로 좋았으리란이쉬움이 남습니다.

Q6. 일각에선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체제를 위협할 수 있단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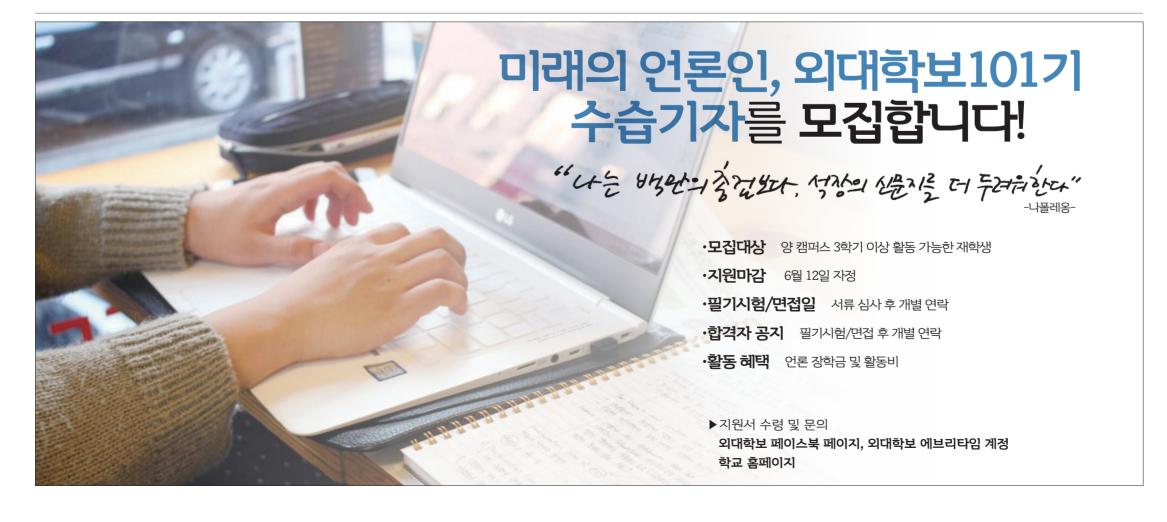
선진복지국가의 역사를 보면 이는 당연한 우려입니다. '인간상품화' 가심한 영국과 미국도 복지국가 유형에 포함돼 있습니다. 제2차세계대전후 무너진 사회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보편적 복지제도를 구축했기 때문이죠. 영국의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 와 미국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가 20세기 중반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은 국가채무증가와 저성장의 늪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에 1970년대 들어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기조를 들고나왔습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제도를 대폭 축소하며 친시장적 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도 운영방식에 따라 기존 복지체제전반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Q7. 현재 우리나라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어떤 복지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나요?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국가발전 단계상 선진복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해에 들어서 △경제△사회△정치 등 여러 면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란 말은 '스스로 가장 첨단을 달리고 있는 국가' 란 뜻이기에 우리나라만의 방식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발전 역사를 보면 경제성장기엔 독일의 '비스마르크식', 민주화기엔 스웨덴의 '공동체주의' 나 영미식 '친시장주의' 를 들여왔습니다. 우왕좌왕하다 시간과 재정을 낭비한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기반으로 형성된 고유한 가치와 문화를 고민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복지체제발전 자체만 놓고 보면 '유아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선별적 또는 보편적 복지 중 어떤 성격을 띠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의 복지체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식을 찾고 나아가 아시아 복지 모델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개발 해야 할 시점이라 봅니다.

*특수형태고용노동자: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선택과

외대학보 기자로 활동하는 매 순간이 선택의 기로였다. 어떤 주제로 기사를 작성할지, 누굴 인터뷰할지는 당연하고 단어 하나 사용하는 것도 고민했다. 언론은 우리사회를 비추는 창이라지만 그 창에 무엇을 비출지 결정하는 것은 기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를 넘어 우리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사 람들에게 전달되는 대부분의 정보는 언론에서 나온다. 언론이 특정 사건을 조명하면 사람들은 그 사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반대로 언론이 은폐 한 사건은 그 내막을 알기가 어려워진다. 나는 사건을 공론화하는데 언론이 주는 힘을 믿었다. 이에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알아야만 하는 사건을 가장 중요 한 뉴스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어쩌면 학보사 마감작업은 12면이란 적은 면수를 의미 있게 채워나가기 위한 선택과 고민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선택과 고민이 수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내가 선택해야 했던 것은 비 단 기자로서의 역할 뿐만은 아니었다. 내가 학보사 기자로 계속 활동할 것인 지 자체를 고민하던 순간이 있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대학생으로서 견디기 버거운 순간도 존재했다. 대체 어떤 것부터 잘못된 것인지 기억을 더듬어보 다 문득 이런 고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나간 시간은 돌 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에 나는 현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다. 이미 벌어진 사건이 누구의 책임인지와 상관없이 내가 맡을 수 있는 최 대한의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다. 고장난 의자에 앉기보단 두 발로 서있는 편 이 낫다는 말이 있다. 두 발로 서있기로 결정한 순간, 마음이 놀랍도록 편해졌 다. 그리고 한 학기가 마무리돼가고 있는 지금, 내 옆엔 언제나 넘어지지 않도 록 손을 잡아줄 사람들이 많았단 사실을 깨닫는다. 우선 진실을 추구하겠다 는 일념 하에 6번의 회의와 마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학보사 동료 기자들 이 있다. 각자의 삶을 살다가도 학보사실에선 한목소리를 내는 이들이었다. 그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김원명 교수님과 이춘매 선생님도 계셨다. 또한 따뜻한 조언을 건네주시는 안흥섭 사장님도 계셨다. 이 모든 분께 감사 를 표하는 바다. 두 발로 섰던 나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걸어나간다. 외대학보 에서 활동하며 의자에 앉기만을 집착하던 나는 스스로 걸어 나갈 만큼 성장했 다. 이젠 외대학보에서의 모든 시간을 품에 간직하고 떠나야 할 때다. 나는 어 디든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



김나현 편집장

김행운(중국어 · 중통 19)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벌써 이번 해의 반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지나갔다. 부 교수진이 현재의 시험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 외대학보 1044호에 담긴 다양한 내용 중 △대면강의 허용△온라인 시험△융합인재대학(이하 융인대) 신설

1044호 학보를 읽고

이해와 노력

이 세 기사에 관심이 갔다. 지난달, 우리학교는 제한적 대면 강의를 허용한단 공 지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대면 수업에 관한 정보 △총학생회의 의견 전달 내용△대면 수업에 관한 우려 △상황 변화에 대한 학교의 대처로 구성됐다. 이중 대 면 수업 허용에 대한 우려 부분에서 스물리적 거리스 대면 수업 불참으로 인한 피해△수업방식 결정방식 등 학생의 다양한 사정을 언급한 것이 좋았다. 특히 우리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올라 온 대면 수업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정확한 수치로 제시

해이해가쉬웠다. 다음으로 눈에 띈 글은 온라인 시험에 관한 글이다. 외대학보에선 이번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생겼던 문제 를 지적했다. 이는 비단 방식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기 사에 언급된 미네르바 교양대학 K 수업의 경우 에타에 관련 게시글이 올라왔으나 공론화되진 않았다. 그러나 외대학보는 기사를 통해 이를 공론화시켰다. 또한 코 로나19확산에도 일부 교수진이 오프라인 시험 방식을 고집해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외대학보는 이런 시험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지 못했다. 일

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비판이 나타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하지만 정보 수집과 소식 전달에 선 정성이 보였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캠퍼스 융인대 신설에 관한 기사 가 눈에 띄었다. 기사엔 융인대 신설뿐만 아니라 이전 부터 있었던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독자에 게 알렸다. 여기엔 자유전공학부의 폐지 결정과 영어 대학 내 학부 통폐합 등 시례도 제시됐다. 기사를 통해 융인대 신설 또한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었다. 기시는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을 함께 명시했다. 그러나 재학생을 배제한 행정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찬성한 학생의 의견은 실리지 않은 점 이 아쉬웠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눈앞의 이득을 두고 타인을 고려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뿐더러 종종 생각 지 못한 변수가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 리는 더 소통해야 하고 고민해야 한다. 외대학보와 총 학생회는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학교의 몫이다.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책 '김지은입니다'를 읽고]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2018년 3월 5일, 김지은 작가(이하 김 작가)는 JTBC '뉴스룸' 에 출연해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가해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이하 안 전 지사)였다.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봤지 만 실감이 나지 않았다. 당시 안 전 지사는 차기 대선의 유력 후 보였으며 그의 미투(me too) 운동*과 성 평등 지지 발언을 보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뭔가 바뀌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작가의 폭로는 이런 세상의 시각을 완전히 뒤집었다.

'김지은입니다' 엔 김 작가의 안 전 지사 성폭력 고발 554일간 의 기록이 담겨있다. △고발 전의 수많은 고민△고발 과정에서 의 위협△현재도 진행 중인 2차 가해가 담긴 글은 읽는 내내 마 음을 괴롭혔다. 피해자의 솔직한 글은 성폭행이 얼마나 한 사람 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인지 피부로 와닿게 했다. 24시간 내내 손 과 발이 돼야 하는 수행 비서의 강도 높은 업무는 경악스러웠다. 동시에 그런 비서를 자신의 욕구 분출 대상으로 삼은 안 전 지사 가 끔찍했다. 그러나 수행 비서 업무와 성폭행 당시의 고통보다 내 눈을 질끈 감게 했던 부분은 폭로 이후의 2차 가해였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김 작가가 '고학력 엘리트' 여성이기에 피해 자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넹', ^~ 과 같은 어투를 꼬투리 잡아 피해자답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다움' 을 강조한 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만이 아니었 다. 언론은 성폭행 피해 이후 생활상을 설명하며 그의 피해 사실

을 부정했고 대중은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피 해자는 온전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먹어선 안되며, 성폭행 피해 사실에 좌절한 모습이어야 했다. 이와 같은 틀짓기는 피해자를 위축시켰다. 김 작가는 '카페에서 친구를 만 났을 때 웃거나 얘기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두려웠다' 며 끊임없이 자신의 일상을 검열했다고 말했다. 이처 럼 우리 사회에선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 하는 경향이 만연하다. 이런 사회에서 피해자의 삶은 분절되고 해체당한다. 김 작가의 글은 2차 가해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지난해 안 전 지사는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았 다. 그러나 김 작가에 대한 2차 가해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처럼 피해자를 향한 의심과 2차 가해가 만연한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 자와 연대할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피해자를 믿어주고 지 지하는 것이다. 김 작가는 '넌 잘못이 없으며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어둠 속에 숨어있던 피해자가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젠 가해자는 감옥으로 가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와야 할 때다.

*미투(me too) 운동: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소셜 미 디어에 해시태그 '#MeToo'를 다는 것으로 대중화됐다.

이현지 기자 100hyunzi@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큐어'를 보고] 모순적인 사회와 인간을 비판하며

영화 '큐어' 는 용의자의 살해 동기가 불분명한 살인사건으로 시 작된다. 각기 다른 용의자는 모두 자신이 피해자를 죽인 걸 알지 만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잇달아 발생한 살인사건은 목부 터 가슴팍까지 칼로 'X자' 상처를 낸단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형사 '타카베' 는 앞선 살인사건이 최면술에 의한 살인교사란 걸 알아낸다. 진짜 용의자인 '마미야'는 타인이 살인을 저지르게끔 최면술을 사용한다. 영화 내내 그는 타카베와 심리전을 벌인다. 타카베의 숨겨진 본성을 자극하던 마미야는 결국 그에게 살해당 한다. 이후 타카베가 정신병을 앓던 그의 아내를 X자 상처로 살 해하면서 그도 마미야의 최면에 걸렸다는 걸 암시하며 영화가 끝

이 영화는 사람은 누구나 증오심을 가질 수 있단 사실을 전달한 다. 이는 영화 속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 교사△의사△경찰이란 직업을 갖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우 린 사회적인 지위 혹은 외관을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곤 한다. 이처럼이 영화는 외면적인 것과 관계없이 부정적인 감정은 만인 에게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또한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이 저지른 살인은 관객에게 공포를 준다. 직업이나 평판은 그 사람 의 본질적인 면이 아니다. 인간의 내면에 어떤 욕망을 품고 살아 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는 영화 전반적으로 관통되는 주제로 마 미야가사람들에게 최면을 걸 때 이용하는 점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관객이 인간 사회의 모순과 개인의 욕망 표출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영화 중반부에 마미야가 타카베에게 "당신이 누 구야?", "당신이 누구냐고"라는 질문을 한다. 언뜻 들으면 정신 병자의 질문 같지만 마미야는 타카베의 본심을 묻고 있다. 마미 야는 대답하지 못하는 타카베를 향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고 말하며 형사인 그가 살인교사범인 자신과 동등하다고 말한 다. 사실 타카베는 자신의 본모습을 숨기고 사는 것을 자각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며 살았다. 타카베는 자신을 꿰 뚫어 보는 마미야의 질문을 듣고 살인교사 최면에 당하지 않겠다 고 다짐한다. 그러나 이내 살인을 저지르며 자신을 해방한다.

이 영화는 관객에게 다소 섬뜩하게 다가온다. 주인공의 살인이 본심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영화는 인간 사회의 모순성을 꼬집는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숨겨진 이면 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누구나 겉모습과 평판과는 달리 잔 인한 내면을 숨기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에 모두가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손서연 (통번역 · 영어 19)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1044호 학보를 읽고

학생의 권리는 어디에

우리학교 대다수 학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 하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했다. 지난해 강의 실에서 학우들과 수업을 들을 수 있던 점이 새삼 감시해 졌다. 이런 시기에 학교의 상황을 전달한 외대학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면엔 우리학교 일본학대학 측이 재학생 전원에게 면 학장학금을 지급했단 기사가 실렸다. 학생의 어려움에 공감한 학교 측의 모습에 따뜻함을 느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됐던 '스마트도서관' 준공식의 소식도 있었다.

3면엔 우리학교가 제한적 대면수업을 허용했단 내용 이 담겼다. 해당 기사에선 대면 수업 허용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지적됐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도 학 교측의 입장 표명이 없었단 점에서 우리학교 행정 처리 에 아쉬움을 느꼈다.

융합인재대학(이하 융인대) 신설 관련 내용도 눈에 띄 었다. 4면엔 융인대가 무엇이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 견이 실렸다. 기사는 학교와 학생 간의 의견 대립이 발 생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융인 대 추진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해온 교수와 총학 생회(이하 총학)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 다만 타학교에 서도 학과 통폐합이 빈번해 지고 있는 만큼 관련 사례를 제공했다면 보다 객관적인 기사가 됐을 것 같다.

이번 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총학이다. 양캠 퍼스 총학은 학생과 학교 사이의 소통창구다. 이번 호를 통해 총학이 대면 수업에 대한 우려를 학교 측에 전달한 과정을 알 수 있었다. 특히 5면은 학교 운영에 총학이 미 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지 않단 점을 꼬집는다. 학생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총학의 행보를 짚어 독자가 스스로 학교 운영에 관심을 가질 기회를 제공했다.

7면엔 온라인 시험의 한계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 됐. 코로나19이전에도 온라인 시험과 관련된 잡음은 존 재했다. 그러나 이번 계기를 통해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학교 측에선 앞으로 치를 기말고사에 대한 해 결방안을 하루 빨리 제시했으면 한다.

12면 전반은 최현우 마술사와의 인터뷰가 담겼다. 최 현우 마술사의 학창 시절 얘기는 흥미로웠다. 나아가 마 술사 최현우가 아닌 인간 최현우의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단점에서 기성 언론과의 차이점이 존재했다.

'글이 가진 힘을 믿는다' 는 칼럼에 공감한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선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필요하다. 학생을 위한 학교도 좋지만 학생이 '원하는' 학교가 되길 바란 다. 학교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 학교 구성원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온 외대학보를 응원하며 글을 마 때맞춰 온 여름이 아직 생경하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기에

국 · 부장 고정칼럼

어느덧 계절이 여름에 들어섰다. 예고된 폭염을 우려하고 장마를 대비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번 해 봄을 맞이하기도 전에들이닥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준비되지 않은 마음과 상관없이 코로나19는 사회의 많은 부분을 새로운 궤도로 진입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상반기를 강타했던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사회 각계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은 당연했던 일상이 무너지며 생긴 균열 속에서 새로운 부조리를 마주하게 했다.

대학가는 한 학기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며 크고 작은 문제와 직면했다. 학생은 △생계△주거△학습권 등의 위협을 받았고, 학교는 빠르고 적절한 대처 마련 요구에 시달렸다. 와중에 등록금 일부 환불 요구는 대학의 등록금 책정 기준과 사용명세의 불투명성을 드러냈다. 또한 온라인 시험의 부정행위 논란은 이전부터 존재해온 비대면 시험의 사각지대를 조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흔적이 가시적으로 기록되는 온라인의 특성은 일부 교수의 자질을 시험대에 오르게 했다. '난세 영웅'의역설이다.

역사의 교훈처럼 언제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선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상반기가 저물어가는 지금이 도약을 준비할 적기라 할 수 있다. 잘 마무리된 끝은 시작의 좋은 발판이 된다. 현재 우리학교엔 아직 끝나지 못한 논란이 산적해 있다. 이를 어떻게 마무리할지가 앞으로 내디딜 한 발의 향방을 결정한다. 여기에서 방점은 마무리가 아니라 '어떻게'에 찍힌다. 이에 우리의 성숙한 의식과 건강한 논의가요구된다. 더불어 지치지 않는 지속적 관심도 필요하다. 끝이우리의 다음을 결정할 것이기에 말이다.

외대학보도 이번 학기 마지막 호를 끝내고 다음을 준비해 나가려 한다. 외대학보의 독자 모두가 상반기를 잘 갈무리하고 하반기에 다시 안온한 시작을 할 수 있길 기원한다.

허지나 부장 99_jina@hufs.ac.kr

HUFS PRESS

한 학기를 마치며...

김나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소중한 외대학보! 응원하겠습니다.

김미정: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김연수: 외대학보 최고입니다!

이상우: 함께여서 빛났던 외대학보 감사합니다.

이서미: 한 학기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준성: 외대학보 덕에 즐거운 한 학기였습니다!

이현지: 외대학보를 통해 소중한 기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조미경: 잊지 못할 소중한 사람들과 기억을 얻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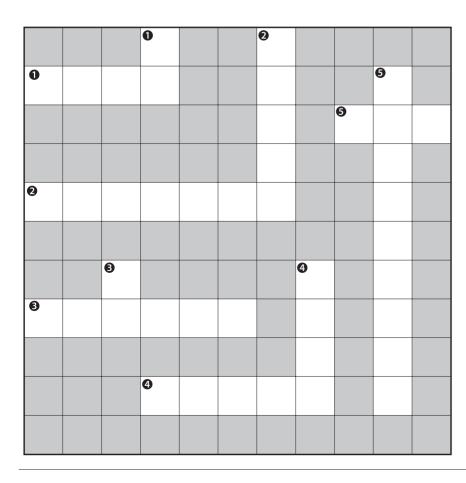
조하영: 외대학보와 함께해 뿌듯했던 학기였습니다.

조현수: 좋은 기사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최민선: 외대학보와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허지나: 덕분에 즐겁고 보람찬 한 학기 무사히 마쳤습니다.

십자말풀이



가로

- 1. 줄어든 알바 OOOO, 휘청이는 대학생 생계 (5면 참조)
- 2. ○○○○○○○ 투표로 선출한 두 명의 총장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2면 참조)
- 3. L 교수의 글로 불거진 ○○○○○ 논란 (4면 참조) 4. '더 본(The 본)'은 △○○○○ 발족△학점 포기 제도△
- 1학년 회화수업 절대평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3면 참조) 5. 경제○○○엔 독일의 '비스마르크식', 민주화기엔 스웨덴의
- 5. 경제○○○엔 독일의 '비스마르크식', 민주화기엔 스웨덴의 '공동체주의'나 영미식 '친시장주의'를 들여왔습니다. (9면 참조)

세로

- 1. 우리학교 영미문학문화학과 재학생, EU대표부 〇〇대회 대상 수상해 (2면 참조)
- 2. 고교방문이이이이가 시작된다. (1면 참조)
- 3. "원래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었지만 이번엔 계약이 ○○ 됐다" (5면 참조)
- 4. 전대넷은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 제기를 위한 온라인 ○○○○을 7월 초까지 모집 중이다.
- 5. ○○○○○○○○을 비껴간 우이동 경비원 갑질 사건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세 분에 한하여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한 학기를 마치며,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는지 돌아보자.

하루가 끝나면서 하루를 반성하고, 일주일이 끝나면서 일주일을 반성한다. 한 달이 끝나면서 한 달을, 한 학기가 끝나면서 한 학기를 반성하게 된다. 기말시험이 다가온다. 코로나19로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학기를 겪고 또 마치게 되었다. 돌아보며 살피는 반성에 관한 한이주 오래된 유명한 반성은 안회의 반성일 것이다. 『논어(論語》 「학이(學而)」편에 따르면, 안회(傾回, B.C.514?—B.C.483?》는 하루를 마치면서 세가지 반성을 했다. "남을 위해 일을 꾀함에 있어 진실하게 마음을 다했는가? 벗과 더불어 시점에 있어서 믿지 못하지 않았는가? 전해 배운 것을 다 익히지 못하지 않았는가?"

안회는 공자(孔子)가 아낀 제자다. 공자는 배우기를 좋아하고, 옛 것을 좋아한 이다. 안회의 반성을 통해 안회 또한 배우기를 좋아했고, 배운 것을 미쳐 다 익히지 못했나 를 매일 돌아본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자와 그가 가장 사랑한 제자 안회는 모두 평생을 배우기를 좋아하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최선을 다하며 진실하게 산 이들 같 다. 그래서 성인이라고들 한 것이리라. 대학에 들어온 이후 공부하고 또 공부하며 가 르치기를 30여년이 넘었다. 생각해 보니, 동아시아에서 말하는 성인은 멀리 있는 것 이아니다. 늘 반성하며 사는 이들이 바로 성인인 것이다.

우리학생(學生)들은학생이란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학생은참좋은말이다. 학생을 우리말로 풀면 '배우미' 라는뜻이다. '대학생(大學生')'은 '큰배우미' 란뜻이다. "대학(大學)」에 나타나는 '대학'의 '길'이 밝은 덕을 밝힘, 백성을 사랑함, 지극한 선에 머물음이라는 삼강령(三綱領)이 있다.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여덟가지 항목인 팔조목(八條目)이 있다. 즉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다. 이를 고려할 때, 대학생은 나와 내가족, 더 나아가 나라를 안정시키고 세계 평화를 걱정하는 '큰배우미' 다. 나는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진실하게 마음을 다한다'는 뜻인 충(史)이 전제되어야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안회도 이것을 제일 먼저 반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충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자한다.

충(史)은 갑골문(甲骨文)에 보이지 않는다. 갑골문은 상대(商代, B.C.1766-B. C.1122경)에 점을 쳐서 얻은 내용인 복사(下辭를 거북이의 배 껍질 혹은 짐승의 어깨뼈에 새긴 글자다. 갑골문에 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충 개념이 상대 시절에는 아직 대상화되어 객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자문명권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문헌인 『시경』이나 『주역』에는 충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갑골문은 주대(周代, B.C.1046-B.C.256)의 금문(金文)으로 발전하는데, 충은 바로 주대 명문(銘文)에 새겨진 금문(金文)에 처음 나타난다. 금문에 나타나는 충(史)자는 윗부분에 '치우치지 않는 깃발'을 상형한 중(中)자와 이랫부분에 심장을 상형한 심자가 결합한 회의문자다.

『서경(書經》』에 이르러서야 충자가 7차례 나타난다. 그리고 춘추시대의 『좌전(左傳》」에는 무사(無私)의 뜻으로 나타난다. 또 『논어』에는 18차례 나타나는데, 군주에 대한 충성, 혹은 안회의 날마다 하는 반성에 나타나는 내면의 진실한 마음, 공자의 도를 증자가 충서로 풀이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일관(一貫) 등의 뜻으로 나타난다. 『상형 자전』에 따르면, '충은 내적으로 마음이 공정하고 사사로운 정에 치우치지 않음'을 뜻하고, 『설문해자』에 따르면, '충은 우러러 공경하며 뒤따르는 것'을 뜻한다.

'내면의 진실한 마음'을 뜻하던 충 관념은 춘추시대에 이르러 '임금에 대한 충성' 이라는 정치적 의미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논어』「팔일(八佾)」편에서, "군주가 신하를 예로 부리면, 신하는 군주를 충으로 섬긴다"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서 충은 내면의 진실한 마음이라는 뜻으로도 읽히고, 군주에 대한 충성이란 뜻으로도 읽힌다. 이후 순자(荀子)와 한비자(韓非子)를 거치면서 또 진(秦)나라와 한(漢)나라시대를 거치면서 충의 뜻은 확장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

충은 때에 따라 나라에 대한 충성, 독재자에 대한 충성, 윗사람과 조직에 대한 충성으로 쓰였다. 이런 면에서 충은 우리 시대에는 낡은 개념으로 마치 청산되어야 할적 폐처럼 여겨져 반시대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은 충의 본래 뜻이 시대를 관통해 추구할 '치우치지 않는 진실한 마음' 이기 때문이다. 독재와 권위의 시대에 악용된 충의 이력 때문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진실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그리고 미래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본래 뜻을 되새기며, 다시 온고지신(溫故知)하고 법고창신(法古創新)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다시 새기자. 매일매일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성을 다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일을 도모하자. 그러면 그것이 자신을 가꾸며 남을 가꾸고 그것이 확대되면서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고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길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 김원명(철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98nahyuuuny@hufs.ac. kr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김원명 편집장 김나현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인물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외 대 학 보**

중국이 사랑하는 한국인

유지원 크리에이터를 만나다

지난해 열린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시상식에서 역대 최연소 수상자로 선 정됐던 유지원(중국어·11) 씨는 편견없는 시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 화를 알린 크리에이터다. 이미 중국에선 △상하이 빌리빌리 월드 페스티벌 외국인 스타상 수상△중국을 빛낸 50인의 외국인 수상△CCTV(중국국영 방송사) 코로나19 특별 생방송 진행 등의 행보를 보이며 단순한 크리에이 터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인이다. 이처럼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유지원 크리에이터를 만나보자.



Q1. 지난해 우리학교에서 주관한 자랑스러 운 외대인 프로티어상에 최연소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유일한 20대 수상자로 국내·외에서 탁월한 사회적 성과를 보인 동문에 선정됐단게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 다. 이 상을 받은 소감이 어떤가요?

처음 수상 대상지라고 연락받았을 땐 신기했습니다. 대 학 시절 전 적극적이지도 특별한 활동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상식 당일에도 우리학교를 빛낸 선배들 사이에 있단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활동을 높게 평 가해준 우리학교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 활동이 지금 보다 미래에 더 가치가 있길 비라는 뜻에서 프로티어상 을 수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학교의 기대에 부 응해 앞으로 더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Q2. 대학생 유지원과 현재 중국의 인기 크 리에이터 '한국뚱뚱'은 어떤 변화가 있나 요?

과거와 현재의 사이에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본 사람은 절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기질을 가진 소위 '인싸' 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전 오히려 조용하 고 차분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주로 적극적이고 붙임성 좋은 크리에이터의 이미지가 제게도 투영된 것 같습니 다. 평범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던 이유는 일상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기 때문 입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며 부담 없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3. 우리학교에서의 경험이 지금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중국어과에 진학한 계기는 단순히 중국어를 더 공부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특히 언어적 측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싶어 우리학교에 입학을 결정했 습니다. 이후 중국어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를 깊게 공부 했습니다. 또한 우리학교 중국인 교환학생과 친구를 맺 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중국에 대해 더 알게 됐습니 다. 이런 학교생활이 연결고리가 돼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었습니다.

Q4. 졸업 후 비교적 안정되지 않은 분야에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우선 일반적인 회사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규율이 엄 격한 수직적 기업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반기업 입시란 선택지를 제외하니 자연스레 시업을 고 려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주최한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제 사업 기획을 평가받았습니다. 당시 멘토였던 김정민 브랜드 건축가 대표님이 개인 방송을 제 안하셨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 조용하고 나서는 걸 좋 아하지 않습니다. 이에 처음엔 주저하며 멘토링 이후 6개 월은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생활이 저와 맞지 않단 걸 깨닫고 대표님이 추천했던 개 인방송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었습니다.



▲ '한국뚱뚱' 으로 활동 중인 유지원 크리에이터

Q5. 중국에서 '한국뚱뚱'이란 이름으로 크 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한 게 2016년 8월입 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크리에이터 활동 을 계획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한국뚱뚱' 이란 이름은 우리나라의 재밌는 물건을 소개 모 우선 취업하는 데 있어 문 · 이과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하려는 취지로 지었습니다. '뚱뚱'은 중국어로 물건을 귀 엽게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릴 적 5년간 중국에서 생활했을 당시 실제 중국은 우리나라에 알려진 부정적 모 습과는 다르단 것을 느꼈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경험하기 도 전에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후한 · 중양국을 올비른시선으로 비라보며 선입견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 방송이 제가 갖고 있던 계획에 부합한 수단이라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자유 롭게 표현할 수 있고 대중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매체이 기 때문입니다. 이후 크리에이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 하게 됐습니다.

Q6. △알리바바 타오바오 스토어 'YYOUTH'개장 예정△중국 망고tv 공부 학도 예능 출연△중국 CCTV 코로나 특별 생방송 진행 등 크리에이터를 넘어 중국에 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며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나요?

팬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법은 더 재밌고 가치 있는 활동 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에 기회가 된다면 지금까지 해온 분야와는 다른 분야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 미에서 지난해 참여했던 예능 프로그램이 기억에 남습 니다. 당시 중국 전국의 10개 도시를 돌며 이동 시간만 10시간이 넘는 장거리를 행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 금껏 몰랐던 중국의 새로운 면모를 알게 됐습니다. 포기 하고 싶기도 했지만 '중국 전역의 8대 요리를 직접 방문 해 먹어보자' 란 목표가 있었기에 힘들 때마다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아 엔터테이너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고 계획했던 목표 달성도 목전에 두고 있 습니다.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항상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Q7. 최근 취업 시장에 뛰어든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분야에 대해 강점을 보이는 전 공은 있겠지만 이는 해당 전공이 무엇을 집중적으로 배 우는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보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 과 뚜렷한 목적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취업 준비생이 취업에 급급해 토익이나 기타 스펙 채우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구체적 목표가 없다면 '깨진 독에 물 을 붓는 격'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먼저 무엇을 좋아 하며 잘하는지 알고 이에 해당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저 역시 '한 · 중 문화를 편견없이 알리자' 란 목표를 세 운 뒤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교양 지식이 콘텐츠에 점차 녹아들었습니다. 중 국에 대한 기본지식과 인문학적 지식이 양질의 콘텐츠 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줬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은 삶 속에서 자연 스레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배우고 있는 학 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시길 바랍 니다.

Q8. 성공한 크리에이터로서 같은 분야를 꿈꾸는 우리학교 후배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 있나요.

최근 많은 사람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유튜브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분야를 다루고 싶 고, 왜 하고 싶은지를 파악해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처 음엔 흔히 개인 방송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겠단 근시안 적인 목표에 함몰되는 실수를 합니다. 이익을 우선시하 면 남들도 흔히 하는 진부한 분야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이 애정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먼저 찾길 바랍니다. 동시에 이를 표현할 개성 있는 방법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자 신의 콘텐츠를 가감 없이 즐길 수 있을 때 타인도 여러분 의 콘텐츠를 진심으로 즐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학 교후배중 크리에이터에 대한 꿈을 갖고 있어 도움이 필 요하다면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단, 진정성 있는 목표를 가진 후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